

아이와 아이

등장인물

송아름

김채이

규리

김단하

병원 원장

간호사

장소

병원 진료소

김다은

1장

조명이 켜진 뒤, 송아름과 병원 원장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다.

송아름: (조급해하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나면요.

병원 원장: 마음 편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같이 심호흡해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병원 원장의 목소리에 맞춰서 송아름은 심호흡을 따라 한다.

병원 원장: 여기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진정되면 천천히 말하셔도 돼요.

송아름: 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신다)

정적

병원 원장: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송아름: 네, 조금 진정된 것 같아요.

병원 원장: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송아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병원 원장: 인터넷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송아름: 너무 불안한 마음에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다가 찾다가 너무 간절한 마음에 오게 되었어요. (한숨 쉬며 고민하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온 이 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병원 원장: 혼자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겠어요. 힘드셨죠?

송아름: 아기를 가진 것도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남자친구 반응 때문에 더 심란했어요.

병원 원장: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송아름: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임신중절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걸 쉽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네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쉽게 생명을 없애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없애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원 원장: 지금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송아름: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연락도 안 받고, 학교도 안 나와요. 무서워서 잠수 탕나 봐요. 개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후,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너무 분해!

병원 원장: 혹시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송아름: (한숨 쉬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그 흔히 말하는 일중독에 걸렸달까요? 엄마 아빠 전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세요. 저희 부모님은 사랑은 돈으로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민거리를 용기 내서 이야기해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요. 힘든 일 있어서 징징거리면 용돈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래요. (헛웃음) 전 그냥 엄마 아빠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바란 건데... 제 친구들은 이런 저의 부모님이 부럽대요. 다른 친구들은 복에 겨웠죠..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서 저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아마도 공감조차 못해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제 삶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면서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왜그리 강조하시는지.. 안 가면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못 말하겠어요. 사실대로 말이라도 하면 전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병원 원장: 어린 나이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름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아름: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 같아서 는 확 수술해 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 인생 살고 싶은데, 생명을 지운다는 게 마음에 참 걸리네요. 작은 생명이라고 해도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도 있잖아요. (흥분하며) 심지어 제 뱃속에 절 닮은 아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지우죠? 원장님 저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병원 원장: 아름양 잠시 진정하고요. (마트료시카를 꺼낸다) 이게... 그...

송아름: 이게 뭐예요..? 이거 그 마티...그 마테시카? 그거 아니에요?

병원 원장: 맞아요. 마트료시카. 이 마트료시카는 조금 남다른 마트료시카예요.

송아름: 뭐가 다르죠? 다른 마트료시카랑 똑같이 생겼는데...

병원 원장: 이건 사실 (귓속말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마트료시카거든요.

송아름: (놀라며) 네? 그게 말이 돼요?

병원 원장: 제가 이걸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겨우 찾은 귀중한 거예요. 한 마디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레어템이죠.

송아름: 정말요? 그 레어템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병원 원장: 이 마트료시카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만 보여주고 있어요. 크기가 다른 마트료시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아름양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양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랜덤으로 보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작은 이 마트료시카가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송아름: 네! 저 지금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병원 원장: 잠시만요! 주의사항을 먼저 숙지하셔야 합니다.

송아름: 아 네! 네.

병원 원장: (종이를 건네며) 이걸 읽어보시죠.

송아름: (종이를 보며) 마트료시카 주의사항. 하나. 마트료시카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릴 경우 현재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 둘. 마트료시카를 선택해 걸린 미래의 상황은 랜덤이다. 마트료시카를 선택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셋. 마트료시카로 미래를 갈 수 있는 기회는 3번 뿐이며, 마트료시카 인형 하나에 하루에 시간이 주어진다.

병원 원장: 주의사항을 다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여기
(중이)에 싸인 부탁드립니다.

송아름: 저 잘할 수 있겠죠..? (중이에 싸인을 한다)

병원 원장: 아름양, 응원할게요.

송아름: 그나저나 원장님은 어쩌다 이런 일을 하게 되
셨어요?

병원 원장: 아. 저도 예전에 아름양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복잡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상황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다른 병원과는 다
르게 특별한 병원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직은
제 스스로 병원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색하네
요. 그냥 상담센터 겸 병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아름: 아, 원장님도 예전에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때
그 아이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

병원 원장: 아니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바로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 일을 저질렀던 남
자친구가 지금 제 남편이고, 지금은 애 하나 낳
아서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지운 아이에 대
해 후회가 계속 남더라고요. 제 딸에게 언니나
오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하는 이런 후회
랄까요? 어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 작은 생명을
지워버린 것도 마음에 걸리고, 제 아이를 보면

그때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나요. 그래서 여기에 온 분들만큼은 후회 안 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아름양도 미래를 보고 오시면 아름양의 결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송아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실에서 원장님이 나간다.

송아름: 그래, 어떤 미래가 나오든 지금보단 상황이 괜찮을 거야.

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2장

미래로 온 송아름은 어리둥절하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한다.

송아름: 여보세요?

김채이: 아름아~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잘 살고 있어?

송아름: 누.. 누구세요?

김채이: 내 전화번호 저장도 안 했어? 뭐야~ 20년지

기 친구 맞아? 다시 봤다 송아름?

송아름: 20년지기..? 혹시 지금 몇살이지?

김채이: 우리 29살이잖아~ (당황한 듯) 아름이 아니야? 아름이 목소리는 맞는데...?

송아름: 우리가 29살이라고? 벌써?

김채이: 그래! 오늘 처음 안 사람처럼 왜 그래? 세월 빠르다니까? 그나저나 아직도 나 모르겠어? 나 채이잖아! 너 단짝친구! 김채이

송아름: (잠시 정적하다가) 아! 김채이? 아~ 너가 김채이구나?

김채이: 뭐야? 이제 안 거야? 내 전화번호 저장 안 했어? 몇 년 못 봤다고 이렇게 나를 잊은 거야?

송아름: 아..아니지! 최근에 핸드폰을 바꿔서 그래. 잘 지내지?

김채이: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송아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뭐하고 지내?

김채이: 말해 뭐해, 애 보느라 바쁘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다. 야.

송아름: 뭐야? 너 애 있었어?

김채이: 뭐야? 새삼스럽게 왜 그래?

송아름: 네가 언제부터 애를 키웠다고.. 지금 몇살이지?

김채이: 5살이지. 너 규리 종종 봤었잖아! 기억 안 나?

송아름: 아.. 아니! 기억나지! 규..규리! 잘 크고 있지?

김채이: 그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니까 서운한 거 있지? 이젠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 뭐가 급

하다고 빨리 크는지..참...

송아름: 이제 5살이면 지금이 딱 귀여울 나이네!

김채이: 귀여운 것도 귀여운 건데 애가 누굴 닮았는지
고집도 진짜 세..

송아름: 너 닮았나 봐. 너 고집 세기로 진짜 유명했잖아.

김채이: 그런가?

송아름: 그나저나 너 내일 나랑 만날 수 있어?

김채이: 갑자기? 난 규리 봐야지.

송아름: 뭐? 내일도 애를 본다고?

김채이: 그럼~ 맨날 봐야지. 더군다나 내일 주말인데... 애가 혼자 무슨일을 할 수 있겠냐. 엄마의 삶이 이런거지, 애 하나 키우는데 시간 정신없이 흘러가.. 넌 모르지? 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즐겨.

송아름: 즐기긴 무슨... 내일 내 생일이니까 바람도 쉴 겸 만나자. 오랜만에 규리도 보고싶네.

김채이: 아 맞다! 내일 너 생일이지? 매년 기억했는데 이젠 나도 아줌마 다 됐네...

송아름: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김채이가 아니야. 내일 내가 너희집 쪽으로 갈게.

김채이: 그래~ 고맙다~ (끊으려다가 다시 말을 이어간다) 아니. 근데 잠시만. 내일 규리도 데려오라고?

송아름 : 응, 왜?

김채이: 규리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송아름: 응, 규리도 너랑 같이 오라니까? 셋이서 만나
자고! 나 오랜만에 규리 보고싶어.

김채이: 내가 알던 송아름이 아니야. 너 원래 애 진짜
싫어하잖아. 애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팔색하던
애가...

송아름: 에이, 그정도는 아니었다. 나 아이들 나름 좋
아했어~ 내일보자!

전화를 끊은 뒤, 송아름은 허무하다.

송아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20년 친구라고 나
에 대해서 아는 건 무지 많아... 다들 잘 살고 있
는 것 같네. 나도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다음 날이 되어 송아름은 김채이 집 앞에 왔다.

송아름: 여보세요? 나 지금 너네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김채이: 어.. 미안! 미안! 지금 내려갈게!

송아름: (전화를 끊은 뒤) 바쁘네.. (걸어오는 김채이
를 보며 반가운 마음으로) 채이야!

김채이: 아름아 오랜만이야! 규리야 이모한테 인사해
야지.

규리: 이모, 안녕하세요.

송아름: 어머, 벌써 이렇게나 컸어? 내 기억엔 규리는
엄마 품에서 꿈쩍도 안 했었는데

규리: 저 진짜 많이 컸어요! 언니 되려고 밥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콩도 먹을 수 있어요!

송아름: 우와 규리 이제 언니 다 됐네?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규리: 음.. 아이스크림이요!

송아름 : 그래, 그럼 이모가 밥 먹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김채이: 우와, 우리 규리 좋겠네? 그럴 땐 이모한테?

규리: 감사합니다!

김채이: 아름아 내가 예약해둔 곳 있거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가자!

송아름: 그래!

송아름과 규리는 김채이가 예약한 식당으로 간다.

규리: 우와! 예쁘다!

송아름: 우와 진짜 예쁘다. 규리야 그렇지?

김채이: (뿌듯해하며) 진짜 예쁘지? 여기 앉자.

송아름과 김채이, 규리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린다. 송아름은 김채이와 마주보고 있다, 송아름의 대각선에는 규리가 자리 잡았다. 기다리는 동안 물티슈로 송아름과 규리는 손 닦을 준비를 한다.

송아름: 규리야! 이모랑 같이 손 닦자!

규리: 네, 좋아요!

송아름: 한 손으로 물티슈를 잡고 손가락 하나 하나 깨끗하게 닦아 볼까? 이모 따라해 봐!

규리: (송아름을 따라한다) 이모! 이모랑 이렇게 닦으니까 재밌어요!

김채이: 뭐야? 무슨일이야. 엄마랑 있을 때는 손 닦기 그렇게 싫어하더니?

규리: (밝게 웃으며) 이모랑 닦으니까 너무 재밌어! 나 손 또 닦고 싶은데.. 엄마, 나 한 번만 더 닦으면 안 돼? 제발~

김채이: 송아름 너 뭐야? 다시 봤다? 왜이렇게 네가 애 엄마인 마냥 육아를 잘해?

송아름: 뭘, 새삼스럽게, 난 뭐든지 잘하는 거 알잖아. 내가 못하는 거 본 적이라도 있어?

김채이: 아무리 그래도 육아까지 잘할 줄은 몰랐지.. 나 몰래 애를 가져본 적이라도 있냐?

송아름: 뭐, 애를 가져보긴 했지. 아 아니 가졌다고는 할 수 없나?

김채이: 뭐?

송아름: 아, 아니. 후.. 후원 그 다른 애 후원했다고. (태연스럽게) 나 지금 이삭 엄마야~ 지금은 탄자니아에 살고 있지만... 넌 누구 후원하는 애 없냐?

김채이: 후원이고 뭐고, 규리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규리: 이모! 손 닦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아름: 그래~ 이제 규리한테 세균이 절대 못 들어가겠네? 이제 맛있게 밥 먹자!

김채이와 송아름, 규리는 음식을 먹는다.

송아름: 규리야 엄마 좋아?

규리: 네!

송아름: 얼마나 좋아?

규리: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좋아요!

송아름: 진짜? 엄마가 제일 좋아?

규리: 네 전 엄마가 제일 좋아요!

송아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규리: 음.. 아빠한테 비밀인데.. 엄마요!

김채이: (어이없지만 귀여워하며) 애가 잔머리는 또 얼마나 잘 굴리는지 아빠 앞에서는 아빠가 더 좋다고 하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더 좋다고 해.

송아름: (웃으며) 잔머리 굴리는 것까지 널 닮았네.

김채이: 그치, 하는 행동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 너무 나 같아가지고..

송아름: (김채이를 보며) 규리 진짜 예쁘다. 넌 이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김채이: 당연하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규리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막
그런다?

송아름: 진짜? 너 규리 낳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네가 제일 중요했잖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
고..

김채이: 그러니까, 나도 엄청 신기해. 모성애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나도 몰랐지..

송아름: 엄마라는 이름이 진짜 대단한 이름인가 봐.

김채이: 그나저나,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요즘 너 취업도 잘했고, 일이 술술 풀린다고 애
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송아름: 부러움은 무슨...

김채이: 그래 너 정도면 성공한거지.. 대학도 잘 가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역시 될 놈들은 된다니
까?

송아름: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면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난 지금 네가
부러워

김채이: 뭐? 내가 부럽다고? 왜?

송아름: 너 닳은 애기랑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삶
이 웬지 모르게 행복해 보여.

김채이: 아직 네가 뭘 모른다 야. 내가 말했지! 지금 더
즐거. 더 즐기고 행복한 삶이 질릴 때, 그때 결
혼해!

송아름: 널 보면서 느낀 건데, 한 사람을 책임지고 돌

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일인 것 같아. 애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넌 진짜 규리보면 살 맛 날 것 같다. 김채이: 애가 갑자기 왜그래? 야 괜찮냐?

송아름: (한숨쉬며)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한 느낌 알아..? 나도 너처럼 의미 있는 삶 살고 싶다.

김채이: 너 닮은 애 있으면 진짜 예쁘고 푹푹하긴 하겠다 야.

송아름: 그치? 나도 애가 있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지?

규리가 졸려한다.

김채이: 이제 규리 낮잠 시간이다. 규리 짜증내기 전에 빨리 가볼게. 오늘 재밌었어! 생일 축하하고, 다음엔 제대로 놀자~

송아름: 그래! 오늘 고마웠어, 조심해서 잘 가!

김채이와 규리는 퇴장하고 송아름만 혼자 무대에 남는다. 송아름 앞에는 마트로시카가 놓아져 있고, 송아름은 고민하다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3장

송아름은 미래로 왔다. 미래로 오자마자 송아름에게 전화가 온다. 송아름은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한다.

송아름: 왜 또 전화야. 운설화? 이 사람이 누구지?

송아름: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네? 누구라고요? 팀장님이요? 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무슨 팀장님이시죠..? 제가 다니는 회사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요? 혹시 어제도 제가 회사를 나갔나요? 아~ 어제 빨간날이었구나~. 그나저나 왜 전화하셨어요? 아 보육원 봉사요? 내일이요? 혹시 어디 보육원이에요? 꿈빛보육원? 아 팀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는구나.. 저도 그리 한가한 사람은 아닌데.. 하루만 가면 된다고요? 네? 7시 30분에 강서역 앞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밤 보내세요!

송아름: (핸드폰을 쳐다보며) 꿈빛보육원? 아, 여기가 미래인가 보다. 어떤 미래지? 내가 꿈빛보육원 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혹시 그 곳에 내 아이가 있는 건가?

다음날 송아름은 회사 동료들과 보육원에 도착했다.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보였고,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다. 송아름은 많은 아이들 중 김단하가

자신의 딸임을 단번에 알아챈다.

송아름: 아,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내 어렸을 적 모습
이랑 똑같이 생겼네..

**송아름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있는 김단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송아름: 안녕..?

김단하: (어색해하며) 안녕하세요.

송아름: 이름이 뭐야?

김단하: 김단하예요.

송아름: 혹시 12살이니?

김단하: (조금 놀라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송아름: 아줌마가 축이 좀 좋아! ㅎㅎ 여기에 몇살 때
부터 있었어?

김단하: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송아름: 태어났을 때부터?

김단하: 아마도 그럴 거예요.

송아름: 단하는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겼네... 어렸을
때부터 사랑 아주 많이 받았겠다.

김단하: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사
랑했대요.

송아름: 그렇지.. 정말 많이 사랑했지..

김단하: 네?

송아름: 아 아니야!

김단하: 그래서 여기 보낼 때도 엄청 울었다던데...

송아름: 이렇게 예쁜 아이를 보냈으니.. 엄마가 엄청 슬펐나보다.. 그러면 단하는 엄마 보고싶지 않아?

김단하: 모르겠어요.

송아름: 모르겠다는 건 무슨 의미야?

김단하: 엄마가 곁에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기도 하고... 전 엄마의 따뜻한 품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느껴본 적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송아름: 단하는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김단하: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잖아요.

송아름: ...그렇지? 엄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 (어색해하다가 음료수를 건네며) 이거 먹어.

김단하: 괜찮아요!

송아름: 왜? 아줌마가 단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데? (정적) 그래도 안 받을 거야?

김단하: (송아름의 눈치를 보며) 감..감사합니다. (혼잣말로) 이 음료수 제일 좋아하는 건데!

송아름: 정말? 나도 이 음료수를 제일 좋아하는데!

김단하: (송아름을 힐끗 쳐다보고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김단하는 혼자 음료수 뚜껑 여는 것을 힘겨워 한다.

송아름: 음료수 줘볼래? 열어줄게

김단하: (즉시 반응하며) 아뇨!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뚜껑을 따려고 하지만 힘겨워한다)

송아름: 아줌마가 해줄게!

김단하: 아 괜찮아요. (계속 뚜껑을 따다)

송아름: (지켜보다) 아줌마가 해주면 안 돼?

김단하: 제가 할 수 있어요. (계속 힘겨워한다)

송아름: (지켜보다가 간절하게) 아줌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줌마가 해줄게, 줘 봐!

김단하: 아니에요. 제가 할래요.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송아름: (감정을 억누르며) 단하야! 혼자 못하겠으면 어른들에게 부탁해. 너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단하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거야. 단하가 혼자 못하겠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어른들이 단하를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단하 나이엔 어리광 부리고 떼서도 충분히 괜찮아. 그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김단하: 아줌마가 지금 도와준다고 해도, 아줌마 가면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엔 어리광 받아줄 사람도 없고요. 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모든 것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어른이 되는 거래요. (깡깡 대다가 결국 뚜껑을 연다) 봐요, 저 할 수 있죠? (한 입 마신다)

송아름은 김단하를 안쓰럽게 쳐다본다.

송아름: 맛있지?

김단하: (끄덕끄덕)

송아름: 이 보육원에서 단하가 제일 언니야?

김단하: 저희 반에서 제일 언니예요.

송아름: 동생들 돌보는 거 안 힘들어?

김단하: 네.

송아름: 동생들이 단하 말을 잘 듣나보네?

김단하: ...네

송아름: 왜? 말 잘 안 들어?

김단하: 요즘따라 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송아름: 단하가 많이 힘들겠네.. 아줌마가 동생들 혼내
줘야겠다!

김단하: 아 안 돼요! 동생들도 슬퍼서 그런 거예요.

송아름: 동생들이 슬프대? 왜?

김단하: 어린테도 엄마, 아빠가 안 돌봐주잖아요. 선생님
님들도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돌봐주
고 있는데 전 아직 어려서 많이 부족한가 봐요..

송아름: 단하도 슬프지..?

김단하: 전 안 슬퍼요. 전 엄마 아빠, 선생님이 없어도
저 혼자 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픈 거예요.

송아름: 그러면 단하도 어렸을 땐 슬렸어?

김단하: 네..? 그때는 조금? 아주 조금 슬렸는데... 아

아니다! 안 슬펐어요!

송아름: 어렸을 때 누가 많이 도와줬어?

김단하: 아니요, 선생님들은 절 보면 항상 스스로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저
혼자했어요!

송아름: 도움 받고 싶지 않았어?

김단하: 네.

송아름: 왜?

김단하: 제 옆에 있는 어른은 선생님들 뿐인데, 선생님을
힘들게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말고
도 돌봐야 할 친구들이 많거든요..

송아름: 선생님들이 힘드시대?

김단하: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은 항상 힘들어 보이세요.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때마다 전
슬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힘들게 하려
면 스스로 잘해야 돼요.

송아름: 단하도 아직 많이 어린데..

김단하: 아니에요! 저 안 어려워. 전 스스로 다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랬는데 저는 두달도 안 돼
서 목을 가눴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거의 울
지도 않았했어요. 선생님들이 저는 키우기 쉬웠
다고 그랬어요!

송아름: 선생님들이 단하를 도와줬으면 좋겠지 않아?

김단하: 괜찮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송아름: 지금이 좋다고?

김단하: 네.

송아름: 여기가 좋아?

김단하: 네, 저는 여기가 좋아요. 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좋아요!

송아름: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항상 행복한 거야?

김단하: 음.. 항상 행복하진 않아요.

송아름: 왜? 여기가 제일 좋다며..

김단하: 좋긴한데.. 밤마다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나거든요.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요.

송아름: (놀라며) 왜? 속상해서?

김단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송아름: 선생님들은 단하가 우는 거 몰라?

김단하: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몰래 울거든요. 이불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송아름: 단하야! 선생님한테 말해, 속상하다고! 나 지금 슬프다고, 지금 나 좀 돌봐달라고 선생님께 말씀 드려!

김단하: 아!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을 걱정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눈물 꼭꼭 참으려고 하고 있어요. 울어도 될 건 없다는 건 저도 이제 다 알거든요. 그냥 제 마음만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송아름: 마음 더 강해질 필요 없어 단하야, 선생님께 슬프면 슬프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눈물나면 눈물난다고 말해. 너는 그래도 되는 아이야. 너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고, 스스로 클 필요

도 없어.

김단하: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커서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절 보면 기뻐할 수 있게.. 엄마가 어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엄마한테 잘 컸다고 꼭 칭찬 받고 싶어요.

동생들이 김단하를 부른다.

김단하: 아줌마, 저 이제 가볼게요. (자리를 떠난다)

송아름: 별..벌써?

김단하: 동생들이 불러요. 제가 필요한가 봐요!

송아름: 어..? 그..그래.. 다음에 또 보자!

송아름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

송아름: 저렇게 예쁜 아이를...내가 저렇게 예쁜 아이를 여기에 두고 갔다니..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 혼자 크려는 모습이 어렸을 때 나랑 똑 같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단하를 키웠다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본 단하와 많이 달랐을까? 아마도 내가 키웠다면 단하가 이렇게 혼자 살아가려는 모습은 없었겠지? 항상 사랑 받으면서 자랐겠지? 지금이라도 내가 키울까? 아니야. 이제와서 미안해서 어떻게 데려가. 단하가 나한테 오지도 않겠지?

송아름 앞에 마트로시카가 나타난다. 송아름은 마트로시카 하나를 선택한다.

4장

송아름은 어색한 듯 주위를 둘러본다.

김단하: (방에서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온다)

송아름: (탁자에 앉아 놀란 눈으로 김단하를 쳐다본다)

김단하: (송아름을 보며) 나 간다.

송아름: 누..누구지?

김단하: 어?

송아름: 너 누구데 여기있어?

김단하: (어이없어하며) 어? 내가 누구냐고? (헛웃음)
엄마 뭐야? 왜 그래?

송아름: 엄마? (지금 생각난 듯) 아~ 단하구나! 어딜
가려고 그래?

김단하: 몇번이나 말해. 나 독립한다고 했잖아!

송아름: 독립..?

김단하: 어. 나 독립할 거니까 찾지 마. 나 갈게.

송아름: (조급해하며) 아니, 아니 잠깐만. 아주 잠시만
앉아봐.

김단하: (단칼에 거절하며) 시간 없어.

송아름: 엄마랑 조금만 이야기하자. 너 독립한다며. 엄
마랑 마지막 날이잖아. 이대로 갈 거야?

김단하: (마지못해 자리에 앉는다)

김단하가 앉은 뒤, 잠시동안 정적이 흐른다. 송아름은 김단하의 눈치를 본다.

송아름: 진짜 갈 거야?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싫어?

김단하: 그런 거 아니야.

송아름: 그럼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엄마랑 살아야지... 이제 너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정적

김단하: 엄마. 왜 계속 나랑 살고싶은 거야? 엄마는 지치지도 않아?

송아름: (놀라며) 지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지친 모습이라도 본 적 있어?

김단하: (감정을 억누르며) 엄마. 이제 엄마도,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 이제 곧 스무살이잖아. 나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아보고 싶어. 엄마도 이젠 나 신경쓰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 안 돼? 하고 싶은 일 실컷하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해보면서 살아. 그러다보면 우리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잖아..

송아름: 뭐? 엄마보고 널 신경쓰지 말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는 너가 더 좋은 옷 입으면 좋겠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네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청춘을 포기했어.

김단하: (송아름 대사 끝나고 바로)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엄마가 얼마나 희생을 하면서까지 날 키웠는지. 나도 아주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살았어.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어도 좋다고 말하면서.. 그냥 엄마가 실망할까봐 지금까지 참으면서 살았어. 근데 이젠 못해. 이젠 그만할래.

송아름: 힘들게 키운 건 엄만데 왜 네가 더 힘들다고 해? 엄마가 잘해줬잖아. 정말 잘해줬잖아. 아니야?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엄마가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결국 이거야..?

김단하: 엄마는 나에 대해서 몰라. 진짜 모르잖아. 내가 뭘 바라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긴 해?

송아름: 네가 바라는 게 뭔데. 아빠? ... 아빠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 빈자리 못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도 빈자리가 느껴져?

김단하: 아빠 빈자리가 채워진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어. 엄만 모르지? 난 그저 엄마의 따뜻한 품을 기다렸던 거. 엄마는 뭐, 나를 잘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엄마의 지나친 헌신과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어.

송아름: 엄마의 관심이 싫었다고? 그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넌 모르지? 엄마는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못하고 컸어. 6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했을만큼 혼자 자랐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관심은 커녕 같이 보내는 시간조차 없었어. 그래서 너만큼은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키운건데 내가 잘못된 거야?

김단하: (해탈한 듯) 엄마 잘못 아니야. 근데 나 지금 좀 지쳤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지금 엄마도 꽃다운 나이잖아. 엄마, 제발 나 좀 버려줘. 제발.

정적

5장

김단하: 엄마, 미안해.

송아름: 아니야.

김단하: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송아름: 다 엄마 잘못이야.

김단하: 아니야, 아닌 거 알잖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니까?

송아름: 안 가면 안 돼?

김단하: 엄마,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정적

송아름: 엄마가 더 잘할게. 그냥 같이만 있어줘. 엄마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김단하: 엄마 왜그래? 영원히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독립하겠다는데. 딸이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니까? 엄마는 딸이 독립하는 게 싫어?

송아름: 네가 독립하면 하루종일 네 생각나서 엄마는 어떻게 살아?

김단하: 엄마 해보고 싶은 거 많았잖아. 이제 그거 하나씩 하면서 살아.

송아름: 해보고 싶은 거 안 해도 돼. 너랑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정적

김단하: ... 엄마... 나 엄마 좋아해, 알지? 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나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 잠시만이라도 아주 잠시만 시간을 가지자. 나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행복했어. 나도 알아.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운 거. 그래서 난 엄마의 사랑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만 생각했지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어찌먼 아빠와 엄마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자라서 좋았어. 정말 좋았는데, 엄마한테 기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

송아름: 지금 너 나이엔 엄마한테 기대도 돼. 충분히
그래도 돼.

김단하: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만 기대면서 살아? 솔직히 이렇게 사
는 거 불안해.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엄마랑 같
이 살 동안 나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
차 주어지지 않았어.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는
기계가 아니야. 나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는 연
습할래. 제발, 엄마. 제발 나 좀 놓아줘.

정적

송아름: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김단하: 엄마, 제발 미안해하지 마. 난 더 이상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보기
싫어. 엄마는 충분히 좋은 엄마였고, 지금도 나
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
에게 좋은 엄마일 거라고 확신해. 나 엄마랑 같
이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이거 하나는 확실하
게 말할 수 있어. 진짜야. 엄마도 내 마음 알지?
언제나 엄마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해. (캐리어
를 끌고 나간다)

**부동 자세가 된 송아름 앞에 마트료시카가 놓인다.
다른 마트료시카들은 다 사라지고 현재를 되돌아가는
것 밖에 안 남았다. 송아름은 현재로 되돌아가는 결
선택한다.**

6장

송아름은 미래에 나를 만나고 온 뒤, 다시 현재로 되돌아왔다.

송아름: 오늘따라 유독 방이 더럽네. (방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한다) 오랜만이야, 이 시간.

송아름: (앞에 보이는 마트료시카를 보며) 째았지만 좋았어..

송아름: (방을 정리하다 말고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 소리

송아름: 또 역시나 안 받네..

핸드폰을 내려 놓는 동시에 문자 소리가 난다

송아름1 : (핸드폰을 보고 딱딱하게 문자를 읽는다)
 딸, 왜? / 엄마는 항상 한결같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송아름 핸드폰에서 전화가 울린다

송아름: 어? 엄마가?

송아름은 바로 전화를 받는다.

김채이: 송아름~ 뭐하고 있어? 너 아프다며? 괜찮냐?
그러니까 대학가려면 몸관리 잘해야 한다고 했지? 내가 너 그렇게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와! 같이 밥이라도 먹자.

송아름: 아니야, 나 지금 밥 먹을 기분 아니야.

김채이: 무슨일있어?

송아름: 어, 좀 혼자 생각할 문제가 있어서...

김채이: 혹시 남친이랑 헤어졌어?

송아름: 아마도.. 헤어졌을 거야

김채이: 뭐? 헤어졌다고도 아니고, 헤어졌을 거라고?

송아름: 중요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나 이만 끊을게~

전화를 끊는다.

송아름: (불안해하며) 아,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해! 채이한테 말해볼까?

송아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채이한테 전화를 건다.

김채이: 여보세요?

송아름: 채이야..

김채이: 왜 전화했어? 까먹고 안 한 말이라도 있어?

송아름: 어..그게 내가 사실 (정적)

김채이: 왜, 무슨일인데?

송아름: 아, 아니다. 그냥 밥 다음에 같이 먹자고~

김채이: 뭘데~ 방금 다른 거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봐.

송아름: 어?

김채이: 우리 이래봐도 거의 10년 지기 친구잖아~ 나
못 믿어?

송아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음에 밥
살게~ 진짜 끊는다? 안녕~

송아름은 전화를 끊고 고민을 한다.

송아름: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건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맞겠지? 내 선택이 틀리게 된다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내 삶이 중요하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 이건 아니야. 아기한테 미안하긴 한데 아직 작으니까.. 어쩌면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미래에서 봤잖아. 힘들게 키웠는데 아이가 더 힘들어했던 거. 차라리 태어나서 힘들게 살게하는 것보다 일찍 없어지는 게 아기한테 좋을 수도 있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송아름은 결심을 하고, 병원으로 간다.

7장

송아름은 병원에 도착했다.

간호사: 송아름님~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송아름: 네.

송아름은 진료소에 들어간다.

병원 원장: 오랜만이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송아름: 네, 다녀온 뒤에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병원 원장: 미래에서 아이를 보셨나요?

송아름: 네, 봤어요. 아주 예쁘더군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였어요.

병원 원장: 그쵸, 딸이었나요?

송아름: 네.

병원 원장: 그럼 아름양 닮아서 더 예뻐졌어요. 혹시 결정은 하셨나요?

송아름: 결정을 하고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흔들려요. 제가 미래를 가봤을 때 제 아이가 너무 예뻐거든요.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예뻐고, 제가 꼭 지켜주고 싶은 아이였어요. 수술을 선택하면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보는 거잖아요. 전 그 아이랑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힘든 일도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보람도 아주 컸어요. 아이를

보내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는 거죠? 제 잘못으로 아이가 죽는 건데 그 예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꼭 지켜주고 싶어요 그 아이.

병원 원장: 그럼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한 번 낳아서 키워보시는 게 어떨지요?

송아름: 제 삶을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제 나름대로 제 삶에 계획도 다 세웠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그걸 못 이루면 어찌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병원 원장: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드시겠지만 결정하시면 아름양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적

병원 원장: 결정하셨나요?

송아름: 네.

병원 원장: (마트로시카를 꺼내며)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경우 왼쪽에 있는 마트로시카, 아이를 낳고 싶을 경우 오른쪽에 있는 마트로시카를 들어주시면 돼요.

송아름: 지금 선택하면 되나요?

병원 원장: 네. 지금 바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송아름의 손이 책상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암전된다.

정적

간호사: 송아름씨~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암전되며 연극이 끝난다.